

피터마이클, 테루아를 마신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71〉와인브랜드 스토리 ③ 피터 마이클 와이너리

이미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성공한 영국인 사업가였다. 충분한 재산도 있었고, 나이도 30대 후반에 접어들었을 당시였다. 사업상 영국에서 미국 실리콘밸리까지 자주 왔다갔다 해야 했지만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만큼 실리콘밸리에 대한 애정이 생기질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와이너리를 만들겠다고 포도농사를 지으려고 생각해보는 적은 더 없었다.

그런 피터 마이클 경(Sir Peter Michael)의 운명을 바꾼 것은 한 잔의 와인이었다. 197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참석한 저녁행사에서 피터 마이클은 소믈리에에게 식사와 함께 할 수 있는 현지 와인을 추천해 달라고 한다. 가져온 와인은 '샤또 몬텔레나 사도네이'의 첫 빈티지. 이른바 '파리의 심판'에서 프랑스 와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미국 와인의 위상을 바꾼 바로 그 와인이다.

피터 마이클은 당시 와인의 맛 자체도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발견이었지만 파리의 심판에서의 우승 소식을 듣자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알게 됐다. 마치 그가 사업 초창기 실리콘밸리가 첨단 IT의 중심부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처럼 말이다. "와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포도밭의 테루아(Terroir)다."

피터 마이클이 와이너리를 처음 세울 때는 물론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철학이다. 프랑스 보르도에 뒤지지 않는 최



(왼쪽부터)마 벨 피오 사도네이, 마 당체즈 피노 누아, 레 빠보 보르도 블렌드, 오 빠라디 카버네 소비뇽, 라 카리에르 사도네이. /나라셀라



(왼쪽부터)피터 마이클 경과 아들 폴 마이클.

고급 미국 와인을 만들기 위해 6년이나 캘리포니아 전역을 샅샅이 돌아본 것도 테루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다.

피터 마이클은 1982년 소노마 카운티 북동부에 위치한 나이트 밸리(Knights Valley)의 가파른 경사면에 포도를 심을 땅을 산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포도밭에서 '몽 플레저르 사도네이(Mon Plaisir)'를 출시했고, 좀 더 고도가 낮고 온화한 기후에서는 보르도 품종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후 소노마 코스트에서 피노 누아 품종의 와인을, 나파 밸리 오크빌 지역에서 카버네 소비뇽 와인 '오 파라디(Au Paradis)'를 내놓는다.

다른와이너리와비슷한포트폴리오지만 평가는 전혀 다르다.

일반적으로 한 와이너리가 한두개 품종이나 카테고리에서 최고 수준의 와인을 만든다면 피터 마이클 와이너리는 내놓는 와인마다 모두 각각에서 최고 수준의 품질력, 인지도, 팬덤을 구축했다. 만드는 14종의 와인 중 12종이 단일 포도밭에서 만들어지는 '싱글 빈야드'일 정도로 테루아가 와인을 통해 제대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 덕분이다.

특히 카버네 소비뇽으로 만든 '오 파라디'는 두 번째 빈티지(2012)가 와인 스펙테이터에서 2015년 올해의 100대 와인 중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2007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 백악관 국빈 방문식 공식 만찬에서는 2003 빈티지 '피터 마이클 레 빠보'가, 2012년 영국의 데이빗 카메론 총리가 미국 국빈방문 당시 '피터 마이클 마 벨 피오 사도네이'가 사용됐다.

/smahn1@metroseoul.co.kr



자료 협조

아버지 따라 항공수호 길 육군 '항공장교父子' 탄생

오병남 준위·오정환 대위 사연 눈길
코브라헬기 조종간 아들이 물려받아
아버지에게 조종기술 조인 구하기도

아버이날을 맞아 30여 년의 시차를 두고 육군 항공 병과의 길을 걷는 부자가 있어 눈길을 끈다.

육군은 7일 33년 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직지원교육을 앞둔 육군시험평가단 감항인증실 오병남 준위(52)와 이제 갓 항공장교 임무를 시작한 7군단 17항공단 소속 아들 오정환 대위(진)·26)의 사연을 소개했다.

오 준위는 지난 1987년 부사관으로 입대해 특전사에서 4년간 근무한 후 항공준사관으로 선발됐다. 항공준사관은 준위계급으로, 장교에 준하지만 장교는 아니다(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이들은 장교 이상의 전문기술을 갖춘 프로페셔널한 군인들로, 고도의 기술숙련도를 요하는 항공병과 등에 주로 보직된다. 오 준위는 야전에서 코브라 헬기 조종사와 항공학교 비행교관을 거친 베테랑 조종사로 현재 시험평가단에서 감항인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오 준위를 포함해 감항인증사는 육군에 16명이 복무중인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아야 가능한 항공기술 전문가들이다.

오준위는 강릉대침투작전 등 다수의 작전과 재해재난 현장에서 활약해 왔으며, 지난 4월 5000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33년간의 군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는 질문에 오준위는 지난 2000년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무월광 취약시기 항공작전을 수행하던 중 엔진 내부 기어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해 불시착하는 위기에 처했지만 조종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조치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다. 이 공적을 인정받아 오준위는 항공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한 조종사나 정비사에게 수여하는 웰던상을 수상했다.

아들 오정환 대위(진)은 지난 해 항



코브라 헬기 앞에서 포즈 취하는 항공장교 부자. 왼쪽부터 아들 오정환 대위(진), 아버지 오병남 준위. /육군

공장으로 선발되면서 아버지와 같은 코브라 헬기를 조종하게 됐다. 오 대위(진)은 유년시절 코브라 헬기 조종사인 아버지로 인해 줄곧 항공기 엔진 소리를 듣고 자라며 군에 대한 친숙함이 자연스레 몸에 배었다.

같은 병과마크를 단 이들 부자는 스승과 제자이기도 하다. 아들은 항공기 조종을 비롯한 고민이 생길때면 군대의 선배인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하고 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한다.

오 대위(진)은 "군인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몸소 보여준 아버지가 있었기에 저도 항공장교로서 큰 꿈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대를 이어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숭고한 사명을 이어갈 수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 항공장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위는 "33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살아왔고 다시 아들과 함께 같은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키는 것이 대견하고 뿌듯하다"며, "군 생활을 마치는 그 날까지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n@

미샤 '크림의 세계' 인기 크림 반값 행사

에이블씨엔씨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11일까지 인기 크림을 반값에 판매하는 '크림의 세계' 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타임 레블루션 나이 트 리페어 프로바이옴 앰플 압축 크림(50ml)'과 '타임 레블루션 이모탈 유스 크림(50ml)', '미샤 초공진 영안고(60ml)' 등 미샤의 베스트셀러 크림 40여 개 품목이 포함됐다.

지난 1월 한국 소비자원 수분크림 시험 평가 후 높은 가성비로 주목받은 '수퍼 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크림(70ml)'과 인기 한방 제품 '미샤 초공진 아이크림(30ml)'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크림의 세계' 행사는 전국 미샤, 농크 매장과 온라인 마이 농크 닷컴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농크와 미샤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비회원은 2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마이리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적립은 할 수 없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베토벤 탄생 250주년 헌정 와인 선배

GS리테일 '넘버3에로이카'

GS리테일이 유명 와이너리인 샤또 발란드로와 제휴한 와인 넘버3에로이카를 12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넘버3에로이카는 천재 와인메이커로 불리며 샤또발란드로를 운영하는 장뤼프느방과 GS리테일이 GS25의 창립 30주년과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헌정한 와인이다.

넘버3에로이카는 장뤼프느방의 대표 와인이자 세계 50대 컬트와인으로 선정된 샤또발란드로와 동일한 블렌딩으로 만들어진 최상위 프리미엄 와인으로 20개월동안 프랑스산 오크통에서 숙성돼 블랙베리 등의 풍부한 과일향과 바닐라향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평균 수령이 30년인 포도나무에서 2016년에 수확한 포도로 만들어졌고 최소 10년 이상 장기 보관이 가능한 와인이다.

라벨에는 GS25 창립 30주년과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한 헌정 와인이라는 문구와 베토벤의 초상화와 함께 그가 장애타고 완성한 명작 교향곡



GS25에서 모델이 넘버3에로이카 와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리테일

3번 에로이카(EROICA, 영웅)가 인쇄됐다. 와인 라벨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가 직접 연주한 에로이카 교향곡의 동영상과 설명도 접할 수 있다. 가격은 10만원이며 6월말까지 출시 기념 가격인 5만 5000원에 GS25와 GS더프리티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이번 넘버3에로이카의 출시를 GS25의 넘버, 네이처 시리즈 와인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선호도가 반영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정부, 6·25 참전국에 마스크 100만장 지원

정부는 한국전쟁(6.25) 발발 70주기를 맞아해 전투병력 파병국 16개국, 의료지원 6개국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한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7일 "22개 참전국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특히 고령의 참전용사에게는 마스크 지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전투병력 파병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16개국이다. 전투병력은 아니지만, 의료부대와 의료진을 보내온 의료지원국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인도, 이탈리아 등 6개국이다.

정부는 전체 참전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먼저 50만 장을 지원하고, 그외 21개 나라에는 잠전 인원과 코로나19



미국으로 마스크 함께 보내지는 한국전쟁 70주년 엠블럼과 StayStrong 로고. /국보훈처

확진자 현황 등을 고려해 재외공관을 통해 50만 장을 이달 중순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마스크 지원 수량과 관련해 위원회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물량을 정했다면서 "현재 마스크 해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인도적 목적 등의 사유로 예외적으로 반출이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형철 기자